

Vol.70 2026 봄과 여름 사이

근본이
깊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Editor's Letter

취향의 출발점

밤늦은 시간 침대에 누워 쇼츠나 릴스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분명 새로운 재미를 찾고 싶어 손가락을 움직인 건데, 화면 속에는 늘 보던 익숙한 장면들만 반복되곤 하죠. 그럴 때면 내가 넓은 세상을 유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잠식되어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봤던 것을 또 보고, 익숙한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그 반복이 야말로 어쩌면 내 취향을 지탱하는 ‘근본’이 아닐까 하고요. 사실 취향의 폭을 넓히는 것과 깊게 다지는 것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며 나만의 단단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낯선 세계로 뻗어나갈 힘을 얻기 때문이죠.

《화분》70호는 이 ‘단단한 뿌리’에서 출발해 보았습니다. 예술의 본질을 전수하는 거장의 손길부터 낯선 무대에 도전하는 청춘의 에너지, 그리고 화성예술의전당을 일구는 이들의 진심까지 담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저마다의 근본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그 불꽃을 어디까지 퍼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더욱 선명하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손에 쥔 취향이 비록 작은 묘목일지라도, 혹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화분》과 함께 예술을 더 깊게 탐미하고 사랑하며 여러분만의 숲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방을 나서 당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찾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화분》이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작가 노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다.
새의 역동적인 날갯짓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림 속 새는 곧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온전히 새이기도 하다.
세상의 생명들은 결국 유한할 것이지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허공의 틈>, 2023, 캔버스에 유채, 45.5×53cm
정태후

《화분》에디터 윤소정

Contents



2026 봄과 여름 사이 Vol. 70

발행처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T. 031-8015-8112
hcf.or.kr

발행인
안필연

편집본부장
정지영

편집팀장
최용운

기획
원예빈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T. 031-247-5141

ISSN 2671-6445

《화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외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INTRO		당신에게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6
THE 답다	Focus	바다 위를 가르는 즐거움 전곡항에 닻을 내리다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16
	Interview 1	현장의 숨결로 완성되는 공연예술 김대진 피아니스트	24
	Interview 2	무대에서 피어날 우리 그리고 내일 ‘2026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 배우 박성은, 이동하, 최준오, 홍승민	34
	Interview 3	화성예술의전당 백스테이지의 이야기 예술의전당본부 변동술, 주재균, 김상균, 이병권	44
	List	관객을 매료시키는 ‘예술적 태권도’ 화성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52
	Talk 1	왜 우리는 다시 느리고 불편한 것을 선택할까	60
	Talk 2	익숙함이 건네는 다정함 언넬브의 에세이 톤	68
	People	유행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취향이 있나요?	74
THE 가다	Walk	이야기가 깃든 자리를 함께 거닐다	82
	Travel	서해의 노을과 낭만에 풍덩 화성 서부해안 1박 2일 여행	92
THE 하다	Preview	공연,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더하다	
	Culture & Issue	문화소식, 문화캘린더	102
	Review	독자엽서	112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122
	Diy	나만의 페이퍼 토퍼로 ‘화성 뱃놀이 축제’ 즐기자	124 125

당신에게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화성 뱃놀이 축제>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배와 교감하며 바닷길을 여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중, 단순 항해사를 넘어 바다의 가이드이자 낭만가로 살아가는 세 선장을 만나봤다.





본보이 계광수 선장

바다와는 거리가 먼 강원도 산골 소년이었다는 계광수 선장.
하지만 신문 배달 중 읽은 한 노부부의 기사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한다.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던 노부부가 우리나라 어선에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대체 요트가 무엇이지에 노년에 저토록 뜨거운 모험을
하게 만드는지 사무치게 궁금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을 품고 해양대에 진학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국, 선장의 꿈을 접고 물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하지만 그를 다시
파도 위로 이끈 건 “작은 배라도 사서 직접 선장이 되어보라”라는
아내의 응원이었다. 그 한마디를 뚫 삼아, 2008년 자식만큼 소중한
배 ‘본보이’와 인연을 맺은 계광수 선장. 쉰 살의 나이, 남들에겐 늦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 뜨거운 항해의 뜻을
올렸다.

“본보이와 <화성 뱃놀이 축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15년 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네요. 평생 품어온 바다의 설렘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상의 답답함은 시원한 바람에 날려 보내고,
전곡항에서 낭만 가득한 하루를 만끽해 보세요!”

카발리에 요트클럽 원필재 선장

바다를 마주할 때 비로소 가장 나타워진다는 원필재 선장에게 바다는 삶의 '심표'이자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다.

30년 전, 그는 숫자가 가득한 책상을 떠나 탁 트인 물 위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한다. 엔진 소리 없이 오직 바람에 몸을 맡기는 딩기 요트, 그 원초적인 해방감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잡았던 조타 키는 그를 국가대표의 반열로, 그리고 드넓은 국제무대로 이끌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항해는 전국항 마라나의 시작을 함께 일구는 헌신이 되기도 했고, 때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기도 했다. 바다를 떠올리면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만 거친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도 오랜 시간 키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다가 주는 정직한 위로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20년 넘게 손때 묻은 배를 다듬어,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인생의 황혼을 바다 위에서 그리는 제가, <화성 뱃놀이 축제>를 통해 여러분께 그 푸른 낭만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카발리에 요트클럽과의 항해가 기분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항벤틀노리(오안네스호) 김형배 선장

김형배 선장에게 바다는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평생을 동경해 온 존경의 대상이다. 그 거친 바다 위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요트는 이제 그의 움직이는 집이자 세상을 향한 창구라고. 가장 위태로운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만난 그는 오늘도 요트 위에서 내일을 향한 꿈을 꾸다.

운명적인 이끌림에 해군이 된 그는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사투하며 단 한 번도 조타 키를 놓지 않았다. 전역 후 마주한 안온한 일상에서도 바다를 향한 갈증은 계속 됐고 결국 이곳 전국항에 정착하고자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는 김형배 선장. 그에게 전국항은 평생의 그리움을 채워준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넘던 그는 이제 전국항벤틀노리(오안네스호)와 함께 전국항의 물길을 가르는 중이다. 목적지는 달라졌지만, 키를 잡은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설렘이 가득하다.

“정성껏 가꾼 전국항벤틀노리(오안네스호)를 이번 <화성 벤틀놀이 축제>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전국항벤틀노리(오안네스호)에 올라 일상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바다가 주는 자유와 새로운 순간의 장면들을 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국항에서 가장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듣고 좋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Focus	
바다 위를 가르는 즐거움	
전곡향에 닿을 내리다	16
Interview 1	
현장의 숨결로 완성되는 공연예술	24
Interview 2	
무대에서 피어날 우리 그리고 내일	34
Interview 3	
화성예술의전당 백스테이지의 이야기	44
List	
관객을 매료시키는 '예술적 태권도'	52
Talk 1	
왜 우리는 다시 느리고 불편한 것을 선택할까	60
Talk 2	
익숙함이 건네는 다정함	68
People	
유행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취향이 있나요?	74

바다 위를 가르는 즐거움 전곡항에 땀을 내리다

여름이 즐거운 바다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파도를 가르는 요트의 활기와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거리마다 피어나는 춤사위까지. 일상을 특별한 향해로 바꿀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곡항 일대에서 열린다.

전곡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사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제공





경계가 없는 무대, 바람의 사신단

<화성 뱃놀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바람의 사신단’이 올해는 한층 더 확장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항해, 바다, 바람, 배’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참가팀이 펼치는 이 댄스 경연 퍼레이드는 해마다 규모와 완성도를 더하며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축제 공간 전체를 무대로 삼는 ‘거리 퍼레이드’로 진행되어 한층 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본선에 진출한 팀만이 본 무대에 오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이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선 전 자체를 축제 현장으로 옮겨왔다. 덕분에 참가팀들은 제한된 무대가 아닌 축제장 곳곳에서 관람객과 직접 교감하게 된다.

이처럼 5월의 전곡향은 바람과 리듬,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예정이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퍼레이드와 함께, 올여름의 시작을 가장 먼저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물 위를 나는 짜릿한 항해

항해의 정수를 오롯이 새겨 넣은 ‘풍류단의 항해’는 요트 위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성 뱃놀이 축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는 요트 승선 체험과 함께,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플라잉보드 퍼포먼스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아울러,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퍼포먼스를 단순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더해진다.

만약 <화성 뱃놀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거침없이 번지는 물살과 공중을 가르는 움직임이 교차하는 ‘풍류단의 항해’를 놓쳐선 안 된다.

바다와 하늘을 잇는 여정, 천해유람단

요트와 보트, 그리고 서해랑 케이블카를 하나로 묶은 ‘천해유람단’은 오직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복합 해양 레저 패키지로, 바다 위를 가르는 항해와 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이동을 하나의 동선으로 엮어낸다. 익숙한 풍경도 시선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장면이 되듯, 이 패키지는 서해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요트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마주하는 생동감 넘치는 해안선은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온한 서해의 전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덕분에 이동 자체가 곧 여행이 된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며 완성되는 이 특별한 여정은 이번 축제에서 서해의 아름다움을 가장 다채롭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전곡항의 밤을 완성하는 빛의 향연

축제가 펼쳐지는 동안, 전곡항의 밤은 매일 새로운 빛으로 채워진다. 해가 저물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잔잔한 바다 위로 수만 발의 불꽃이 연이어 피어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불꽃놀이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축제의 낭만을 완성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된다.

수면 위로 번지는 불꽃의 잔영은 바다를 배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전곡항은 낮과는 또 다른 서정적인 분위기로 물들어 간다. 낮에는 활기찬 해양 레저를, 저녁에는 붉은 노을을, 그리고 밤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따라 이어지는 시간. 서로 다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하나의 여정으로 완성될 재비를 마쳤다.

올해 여름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화성 뱃놀이 축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육상프로그램

바다 밖 육상에서도 바다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열린다. 그림 그리기, 플로깅, 버블 댄스파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바다가 된 거리

전국항 메인 도로가 거대한 스케치북으로 변신한다. 현장에서 제공되는 분필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 현장에 준비된 분필을 활용해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운영시간 추후 공지



마린 플로깅

바다를 더 맑게 만드는 작은 한 걸음. 전국항 주변 쓰레기를 줍고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 SNS 및 현장 접수 가능



전통 방식의 독살 체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색다른 체험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장화와 장갑을 준비하면 더욱 편하다.

-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 예약

- 안전을 위한 장화 및 장갑 필수 지참



어린이 버블 댄스파티

거품이 날리는 공간에서 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 현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여벌 옷 필요시, 개인 지참

참여 EVENT



오션로그(OCEAN LOG)

항해의 순간과 바다 풍경을 담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장면을 공유하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 축제 기간 동안 전국항, 제부도, 궁평항, 백미리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제출

- 주요 주제

축제의 즐거운 순간 / 바다와 항구의 풍경 / 사람들의 표정과 이야기 / 나만의 특별한 뱃놀이 경험

승선프로그램

전국항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승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배 위에서 바다를 마주하며 항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천해유람단

세일링 요트&파워보트와 서해랑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복합 패키지 상품

A. 천해유람단 전국항 탑승 패키지

B. 천해유람단 제부도 탑승 패키지

C. 천해유람단 선셋 투어

D. 천해유람단 야간 승선(폭죽놀이 포함)

- <화성 뱃놀이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모집

*티켓팅 시간 추후 공지



풍류단의 항해

요트 위에서 수상 공연을 즐기는 <화성 뱃놀이 축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 <화성 뱃놀이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모집

*티켓팅 시간 추후 공지

*체험 시간 : 90분 내외



경기도선 체험

화성 8경의 경치가 있는 최신형 여객선으로 떠나는 선상 갈매기 체험

-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 예약

*티켓팅 시간 추후 공지

*체험 시간 : 60분 내외



뱃놀이×불꽃놀이

칠혹 같은 전국항 밤바다 위로 수만 발의 불꽃이 피어난다. 요트 위에서, 혹은 항구를 거닐며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채워지는 낭만의 순간을 만끽하자.

- 일시 : 2026. 05. 22.(금)~05. 24(일) 20:30

*기상 변수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숨결로 완성되는 공연예술

김대진 피아니스트

AI가 완벽한 음표를 연주할 수 있는 시대, 공연예술의 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 답은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관객의 숨결을 읽는 순간에 있다. 홀의 울림, 관객의 에너지, 그날의 공기를 느끼며 연주자는 템포와 터치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김대진 교수는 이 소통의 과정에서 공연예술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글 백미희(편집실) 사진 최이현(싸우나스튜디오)





**오는 7월에 예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협력
기획 공연을 맡아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의 협업은
처음인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김선욱·이진상·문지영·
박재홍 등을 길러내는 동시에
피아니스트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방향이 분명합니다. 슈베르트는 쉽게 말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쓴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클래식을 잘 아는지와 상관없이, 듣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클래식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감상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정답’이 있고,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죠. 음악의 정답은 결국 ‘듣고 좋으면 된다’라는 데 있으니까요.

작년 8월까지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서 협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예종이 음악을 포함해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함께 있는 곳이니, 앞으로 다양한 공연을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죠. 그렇게 MOU를 맺게 되었고, 「작곡가의 초상-슈베르트 스펙트럼」이 처음으로 협업해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더 넓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휘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그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역할은 늘 선생이었다고 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는 이제 교육자다’라고 바뀐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해서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삶은 언제나 여러 역할이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오셨는데요. 음악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과거 인터뷰에서 기본기를 매우 강조하시면서, 음악적 개성과 창의성의 출발은 곡의 배경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자에게 음악 외적인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석 위에는 어떤 기술적 토대가 필요한 걸까요?

교수님은 스스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다’와 ‘만든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음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성향과 필요가 다르므로 지도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격려가 더 필요하고, 어떤 학생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 전공에는 일정 수준의 재능이 필요하며, 이는 음악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 테크닉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무엇을 더 가르치고 어떤 부분을 스스로 깨닫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클래식은 고전문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음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과 사조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학과 미술, 철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대를 읽지 못하면 작품의 본질도 놓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도 당시 계몽주의 사상을 떠올리며 들어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협주곡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중시한 이성과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힘에 대한 감각과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연주자는 음표를 정확히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품이 태어난 시대와 사상까지 함께 흡수할 때 음악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는 작품을 소리로 구현하는 사람이지만, 그 소리 뒤에 있는 시대와 사상까지 흡수해야 음악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연주자의 가장 밑바탕에는 반복훈련을 통해 쌓아 올린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공연예술은 정해진 날짜, 장소, 시간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포츠와도 비슷하죠. 기회는 단 한 번 뿐이기에 기본기와 훈련, 규율, 정신력이 필수입니다. 인문학적 해석도 기본기 그 위에 쌓이는 것이지, 기본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수와 코치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싶네요.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결국 둘 다 음악 안에 있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뛰는 선수와 밖에서 전략을 세우는 코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주자 김대진도 궁금합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더 중요한 ‘무대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최근 AI가 많은 영역을 대체하며 음악에서도 점점 정교한 연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 연주자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근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무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홀의 울림, 피아노의 상태, 조명, 관객의 분위기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연주자는 그 순간의 공기와 관객의 에너지를 느끼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의 음악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만 생기는 영감과 즉흥성이 살아 있는 예술입니다. 완벽한 재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예술은 작품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의 현장에 맞춰 적응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현장의 분위기는 매번 다릅니다. 홀의 울림이 건조한 날도 있고, 젊은 관객들이 에너지를 뽐어내는 날도 있습니다. 연주자는 무대에 서서 관객의 숨결, 공기의 흐름, 홀의 반향까지 느끼며 그 순간에 맞는 미세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같은 곡이라도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템포를 살짝 늦추거나, 터치 무게를 바꾸거나, 강약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그런 판단과 반응이 공연예술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AI는 완벽한 음표 재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대 위에서 관객 한 명 한 명의 시선과 호흡을 느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소통은 불가능하죠.

다만, AI가 좋은 공연예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곡에 따라서 조명을 바꿔준다면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요. AI와 기술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공연예술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연예술의 본질, 그 순간의 생생한 소통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한국예술종합학교 협력 기획공연

<김대진 with Rising Artist> 공연 정보

일시 2026. 7. 11.(토) 17:00 / 2026. 12. 12.(토) 17: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3만 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관람 시간 약 120분(인터미션 포함)

문의 1588-5234



수많은 가르침과 무대를 통해
오랜 시간을 쌓아오신 지금,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하시나요?

예전에는 저도 콩쿠르 입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시
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 예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죠. 콩쿠르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색을 잃고 ‘콩쿠르 스타일’에 맞춰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과보다 자기 음악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
신의 색과 주관을 분명히 지닌 연주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는 학생 고유의 색을 찾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해 보
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치나 경제처럼 어쩔 수 없는 분열이 생기는 분야들이 있죠.
하지만 예술에는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클래식이든 대중음악
이든 결국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 제가 81학번 시절, 사소한 일에서도 자주 감동을 받았던 기억
이 납니다. 유학 갔을 때 유명 연주자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명을
받았죠. 제 선배님은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감상실에서 들으며 울
정도로 감동하셨고 그 뒷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분은 악보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
무 당연하고 쉬워져서 그런 감동의 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건조한 사회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감동을 다시 깨우는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음악이 가진
가장 큰 의미 아닐까요.



무대에서 피어날 우리 그리고 내일

‘2026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
배우 박성은, 이동하, 최준오, 홍승민

‘우리들은 움직였다...우리들은 용감했다.’

뮤지컬 <영웅>의 가사처럼, ‘2026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에 참가한 청춘들은 매 순간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뎠다. 공개 오디션부터 전문 트레이닝, 실제 무대 데뷔까지 신진 배우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냈다. 치열한 도전 끝에 마침내 무대 위에 선 청춘들. 그들은 오늘, 생애 가장 빛나는 장면을 피워냈다.

글 윤소정(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
쇼케이스를 앞두고 계세요.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기억나세요?**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은 6주
동안 주 3회 과정이었다고요.
짧은 시간 안에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연습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홍승민 설희 역 이른 아침에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감겨 있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지금도 오디션 현장의 공기가 생생해요. 당시 로제의 ‘A.P.T.’에 맞춰 춤춰보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마침 학원에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진실 혹은 대담’ 안무를 배우던 중이라, 망설임 없이 그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순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감사하게도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박성은 양상불 역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설렜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오디션장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 에너지를 다 보여드리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에, 오디션장 전체를 무대 삼아 동선을 넓게 쓰며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안무를 선보였거든요. 그때의 저는 이미 이곳에서 펼쳐질 다음 무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하 안중근 역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몸도 굳어 있고 발성도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안중근’이라는 무게감 있는 인물을 맡게 되다 보니 부담도 컸고요. 결국 믿을 건 연습뿐이더라고요. 뮤지컬 하는 친구를 붙잡아 새벽까지 레슨을 받고, 낮에는 카페 구석에 앉아 대본이 닳도록 인물을 연구했습니다.

박성은 양상불 역 무릎 부상으로 걷는 것조차 버거울 때 하필 격한 군무 장면을 연습해야 했어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 장면이 가진 의미를 알기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자’라는 다짐 하나로 매일 물리치료를 견디고, 안무 감독님의 지도 아래 몸을 단련시켰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 덕분에 제 정신력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최준오 최재형 역 연습 첫날, PD님이 주신 대본에 적힌 <영웅>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작품 특유의 클래식하고 남성적인 톤을 살리기 위해 공장 전문가를 찾아가 발성 톤부터 교정했습니다. 외적인 설득력도 놓치고 싶지 않아 수염을 기르고 소품으로 팔토시를 준비했어요. 작은 디테일이 모이면 제가 맡은 ‘최재형’의 모습에 설득력이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함께 땀 흘린 동료들로부터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거나,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은요?

홍승민 설희 역 성악을 전공한 제계 연기는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대사 한 줄을 내뱉는 일조차 부담이었을 때, 안중근 역의 동하 배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세심하게 호흡을 맞춰줘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덕순 역의 순성 배우가 제게 “너만의 색깔을 찾아보면 무대가 더 즐거워질 거야”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어요. 덕분에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었죠. 무대 위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고 고민을 나누어준 동료들 때문에 이제는 이 과정 전체를 즐기게 됐어요.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때와 지금의 스스로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동하 안중근 역 처음에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매일 대본과 부딪히고 등장인물의 삶을 체득하며 깨달았어요. 그 두려움은 사실 무대를 향한 애정이었다는 것 같아요. 덕분에 연기를 숙제가 아닌 삶의 일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최준오 최재형 역 연습실은 제게 늘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선택받고 쓰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도태될 것 같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질문을 던지는 제 모습에서 강사님들이 부족함이 아닌 성실함을 읽어내시더라고요. 덕분에 연습실이 한결 편해졌어요.

봉담도서관과 화성아트홀, 두 곳에서 각기 다른 빛깔의 <영웅>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의 성격이 다른 만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남 달랐을 것 같은데, 쇼케이스를 선보인 소회가 궁금합니다.

박성은 양상불 먼저 봉담도서관에서는 ‘해설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관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삶과 그가 내린 선택의 무게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레 풀어냈어요. 화성아트홀에서는 웅장한 무대 위에서 작품 본연의 에너지를 선보였습니다.

최준오 최재형 역 봉담도서관은 제게 아주 각별한 장소예요. 학창 시절 시험 기간마다 찾던 곳이자, 진로 고민이 많았을 때 자주 찾던 공간이거든요.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배우로서 무대에 서게 된 만큼 더욱 열의를 갖고 무대에 임했습니다.





<영웅>은 ‘장부가丈夫歌’, ‘누가 죄인인가’ 등 가슴을 울리는 명곡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긴 시간 인물에 몰입해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넘버나 대사가 궁금해요.

홍승민 설화역·박성은 양상불 저희는 주저 없이 ‘단지동맹’을 꼽고 싶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결의가 담긴 이 넘버를 부를 때면 ‘연기’라는 의식조차 사라지고 벅찬 감정이 차오르거든요. 특히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는 순간,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몸에 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최준오 최재형역 저는 ‘추격’ 장면이라 말하고 싶어요. 이 넘버는 배우 최준오와 인물 최재형을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주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격한 안무가 있는 장면이기에 무대 위에서 몸이 부서질 듯 움직이는데 그 처절한 사투 속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 가장 애착이 갑니다.

무대의 막이 내리고 객석을 나서는 관객에게 어떤 감정을 드리고 싶었나요.

이동하 안중근역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중심으로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때문에 이번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본 관객분들께서도 스스로를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영웅’이니까요.

그렇다면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홍승민 설화역 뮤지컬이라는 낯설고도 설레는 세계에 첫발을 내디딘 제게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은 특별한 시작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특히 훌륭한 선생님들과 동료 배우들과 함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점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 양상불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은 저에게 도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결국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라이징스타: 메이킹 랩’ 참가자를 만날 수 있는 무대

재단창작뮤지컬 <틸릴과 미틸> 공연 정보

일시 2026. 6. 26.(금) 19:30 / 2026. 6. 27.(토) 15:00

장소 화성아트홀

대상 7세 이하

가격 S석 2만 원, R석 1만 원

이번 《화분》의 주제는
‘근본이즘’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분만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 **홍승민** 설희 역 저의 근본은 ‘무대’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찰나의 에너지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가치라 믿거든요. 결국 제가 가장 깊게 뿌리 내리고 싶은 곳, 그리고 먼 길을 돌아 결국 다시 돌아갈 곳도 언제나 무대 위일 것입니다.

— **박성은** 양상불 역 저의 근본은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끝까지 부딪혀보려 해요. 오디션 준비 과정 역시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열정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 **최준오** 최재형 역 제 근본은 ‘헤로이즘(heroism, 영웅주의)’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작은 영웅이 되어주는 삶을 지향합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에서 만난 배움과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하** 안종근 역 제 근본은 ‘뜨거운 열정’이요. 도전과 끈기, 인내와 꾸준함이라는 가치 역시 열정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마저 결국 제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관객들에게 어떤 뮤지컬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 **홍승민** 설희 역 ‘울림’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가 끝난 뒤 쏟아지는 박수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순간은 무대 위의 찰나의 정적이에요. 관객의 숨소리나 조용한 훌쩍임이 객석을 채울 때, 비로소 제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음을 느끼거든요.

— **박성은** 양상불 역 무대를 꿈꾸는 누군가가 저를 보며 “저 배우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어 있겠죠.

— **최준오** 최재형 역 ‘뜨거운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얼마 전 해외의 한 응원단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완벽한 동작보다 더 가슴을 울린 건 진심이 담긴 그들의 표정이더군요. 제가 느낀 그 열정처럼 저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 **이동하** 안종근 역 이번 무대를 통해 ‘배우 이동하’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채워야 할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천천히 스며드는 배우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홍승민 배우



이동하 배우



최준오 배우



박성은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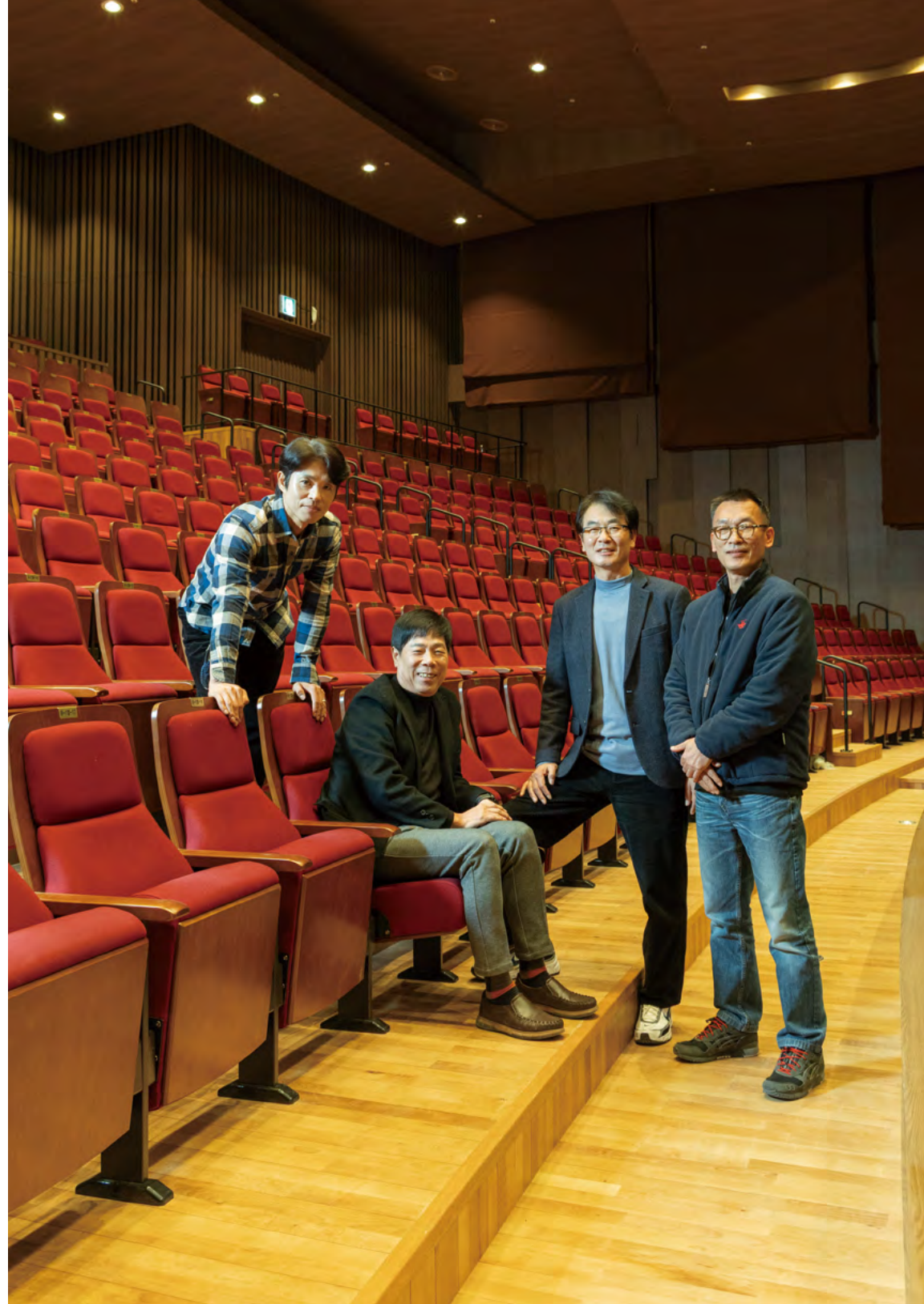
화성예술의전당 백스테이지의 이야기

예술의전당본부
변동술, 주재균, 김상균, 이병권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직전, 무대 뒤편에서는 어떤 숨소리가 오갈까.

화성예술의전당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5개월이 흘렀다.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심 없이 달려온 시간, 그 빛나는 순간들 뒤에는 무대 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지켜온 이들이 있다. 그들이 마주했던 치열한 백스테이지의 풍경과 앞으로 화성예술의전당이 그려나갈 예술적 포부를 들어보았다.

정리 편집실 사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제공



**화성예술의전당은 화성특레시에
생긴 첫 대극장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화성시만의 지역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화성예술의전당은 정명훈
지휘자와 KBS교향악단이
함께한 개관 공연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공연 기획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함께 하반기에는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화성예술의전당을 처음 찾는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요?**

_ 변동술 본부장 화성특레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방대한 크기를
가졌다는 특징과 현재 운영 중인 화성아트홀과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등 세 곳의 중형 공연장 특성을 고려해 화성예술의전당에서만 가능한
규모의 작품들을 선보이려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상반기에 깊
이 있는 예술적 공연과 대중 친화적인 공연을 균형 있게 선보이게 됐습
니다.

_ 주재균 공연기획팀장 화성특레시는 빠른 도시 성장과 폭넓은 연령층
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
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화성예술의전당은
지역의 특색과 시민의 취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성만의 지역 자원과 인구 구조, 생활권 특성을 반
영해 지역의 서사를 담아낸 콘텐츠나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
는 공연 시리즈 등 다양한 기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난 화성의 젊은 에너지와 글로벌한 문화 수요를 고려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기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
적으로는 ‘화성특레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 공연 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_ 주재균 공연기획팀장 올해 라인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 유명 안무가와 세계적 발레단의
공연이 잇달아 무대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당 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는 물론, 기존 발레의 문법을 완전히 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
품인 만큼 화성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관람하셨으면 하는 작품
이기도 합니다.

먼저, 5월에는 세계적 거장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예술적 해석 아래,
발레 명문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백
조의 호수〉가 찾아옵니다. 본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고전 〈백조의 호수〉
를 마이요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치
밀한 심리 드라마로 풀어냈습니다. 익숙한 고전 서사에 현대적인 해석
이 더해져, 발레 입문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것
입니다.

**지역 내 첫 대극장인 만큼,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도 기대됩니다.
이들을 위한 화성예술의전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연이라는 콘텐츠를 잘
담아내기 위해선 무대 기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대
기계와 음향, 조명 등 여러
시스템 중에서 특히 공을 들인 게
있을까요?**

**화성예술의전당의 무대 및 연출
기술은 특히 어떤 장르의 공연에
최적화되어 있나요?**

이러 6월에는 도르트문트발레단의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작품은 강렬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무
대 연출로 잘 알려진 에크만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상상력과 창의적인 안무가 특징입니다. 시각적 즐거움과 역동적인 구성
덕분에 발레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몰입하며 즐기실 수 있
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자부
합니다.

_ 주재균 공연기획팀장 화성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함
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의 문
화 흐름을 확장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순수 예술과
생활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
민과 예술인이 함께 나아가는 지역 예술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_ 김상균 무대기술팀장 화성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은 클래식 오케스트라
부터 뮤지컬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음향 반사판과 흡음재를 정
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객석 어느 위치에서도 균일한 소리를 들
을 수 있도록 정밀한 스피커 시스템과 최신 디지털 믹싱 장비를 도입했
습니다.

또한 공연 장르에 따라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LED 조명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빠르고 안전한 무대 전환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된 무대 장치도 갖추었습니다. 음향과 조
명 무대 기계 모두에서 국제적 수준의 공연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_ 김상균 무대기술팀장 화성예술의전당은 가변 시스템을 갖추어 각 장
르에 적합한 음향과 예술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대 음향
반사판 및 가변 흡음 장치(Acoustic Banner)를 보유하고 있어 장르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무대 전환 장치와 위에 말한 LED 조
명 시스템 덕분에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며, 배우의 동선과 무대 장치
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종합 예술
공연에도 적합합니다.



관객들은 공연장에 가면 언제나 일정한 컨디션의 공연을 기대합니다. 관객과 출연진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_ 김상균 무대기술팀장 공연장은 관객과 출연진 모두가 늘 같은 품질과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하는 공간이죠. 화성예술의전당은 이를 위해 세심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연 전후로 음향 및 조명 시스템 등을 꼼꼼히 점검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객석과 무대의 온-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해 악기와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역시 중요한데요. 무대 전환 장치와 승강 장치가 공연 중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리허설 단계에서 모든 장비와 연출을 점검해 변수를 최소화합니다. 관객에게는 늘 같은 품질의 공연을, 출연진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원과 공연장 입구가 마주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_ 이병권 시설운영팀장 저희 공연장은 로비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뛰어난데요. 그 창을 통해 자라뫼공원을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입구와 공원이 곧장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에서도 접근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동탄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어느 곳에서든 오시기 좋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행 환경이 제각각인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을 텐데,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 시설적으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요?

_ 이병권 시설운영팀장 보통의 공연장은 대개 하나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인근 세 군데의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 종료 후,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여주어 휠체어 이용자나 아동을 동반한 가족 등 모든 관객이 입·출차 시 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주차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변동술 본부장 경기 중부권에 새롭게 탄생한 공연장으로서, 우선 공연장 브랜딩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이를 위해 개관 첫해인 2026년에는 화성예술의전당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를 확립하는 데 힘을 계획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연장 브랜드 구축이 우선이 되겠죠. 2단계는 차별화입니다. 타 공연장과의 차별화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공연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및 제작 공연을 통해 지역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1, 2단계를 통해 얻은 경험과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경기도권에서 화성예술의전당의 위상을 공고히 해 그 어느 공연장보다도 관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다양한 대관 사업과 기획 공연을 펼쳐 시민들의 만족도를 최고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화성예술의전당을 어떤
공간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길
바라시나요?**

변동술 본부장 ‘에코 인 화성예술의전당’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되공원이라는 자연적 환경(Eco)과 조화를 이루는 공연장이자, 깊은 소리의 울림(Echo)으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상균 무대기술팀장 휴식과 문화가 있는 힐링의 근원처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일상의 휴식과 수준 높은 문화가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병권 시설운영팀장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심’인 것 같아요. 공원의 멋진 조경 속에 어우러진 공연장인 만큼,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동술 예술의전당본부장



주재균 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김상균 예술의전당무대기술팀장



이병권 예술의전당시설운영팀장



관객을 매료시키는 ‘예술적 태권도’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힘찬 기합, 절도 있는 품새, 화려한 격파 등 기본적인 태권도 시범만을 예상하며 객석에 앉았다면 큰 오산이다.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는 트렌디한 예술성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융합까지 더해져 있다. 이들의 무대를 ‘예술적 태권도’라고 표현한 이유다.

글 강진우(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바람의 사신단’의 선두에 서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수백 척 요트를 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항구로 이름난 전곡항 인근에는 1,200여 년 전 신라와 당나라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 역할을 한 고대 항구 ‘당성’이 있었다. 그 시절의 당성을 경험할 방법은 없지만, 주요 무역항이라는 특성상 사시사철 활기찬 분위기가 흘러넘쳤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바람의 사신단’은 이 같은 당성의 역동성을 화려한 댄스 퍼레이드로 승화시킨 <화성 뱃놀이 축제>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만 무려 29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펼친 결과,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대상 격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2024년에도 같은 상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였기에 2년 연속 정상 수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김기남 감독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뻗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이라고 하면 흔히 품새, 격파, 발차기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시범단도 당연히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삼지만, 그 이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바람의 사신단 공연에서는 당시 큰 인기를 누린 댄스팀의 안무를 모티브로 삼고 해외 팝송을 접목해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2025년 공연은 ‘아리랑’을 주제로 편곡과 동작을 구성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의 흥겨움을 누리고 공유하는 어울림의 장을 활짝 열었죠.”

김기남 감독은 바람의 사신단 참가를 통해 거둔 호성적은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관내 대학교의 시범단으로서 <화성 뱃놀이 축제>의 성공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긴 데다가, 2년 연속 대상이라는 결과를 발판 삼아 더욱 많은 무대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한 훈련과 열린 소통으로 높이는 공연 완성도

허재성 태권도학과장, 서성원 교수, 강유진 교수(품새부 감독), 김기남 교수(시범단 감독), 박승진 코치를 중심으로 한 지도진과 태권도학과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018년 창단됐다. 태권도의 강인함과 그 안에 담긴 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한 대외 활동에 돌입한 이들은 이듬해인 2019년 처음으로 <화성 뱃놀이 축제> 바람의 사신단에 참가해 금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 개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축제 공연을 진행하며 폭넓은 무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해외로도 발을 넓혔다.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구르메페스티벌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해외 관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의 개막식에서는 태권도의 본질적인 매력을 어필했으며, 지난 3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개막식에서는 태권도 동작과 K-POP 안무를 조화롭게 융합시킨 공연으로 현지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올해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있는 객주용 총주장은 이처럼 다채로운 대내외 무대에 설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으로 ‘성실한 훈련’을 꼽았다.





“우리 시범단은 학과 수업이 끝난 뒤 매일 오후 6~9시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합을 맞춥니다. 평일 내내 이렇게 연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모든 단원과 공유하고 있기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합니다.”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창현 단원은 “누구나 무대 구성, 안무, 편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는 곧바로 채택된다는 것 또한 우리 시범단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무대를 만들 때 지도진부터 신입생까지 모두가 열린 소통 문화를 토대로 집단지성을 발휘함으로써 태권도 시범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만의 특색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전국향에서 관객들과 함께 만든 최고의 추억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지만,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머릿속에는 바람의 사신단 공연 때의 추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박현중 훈련부장의 대답이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방증했다.

“바람의 사신단은 여느 공연과 달리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50~70m 길이의 잔디 무대에서 주변을 빠르게 둘러싼 관객을 대상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공연을 펼친 건데요. 진영이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관객이 달라지다 보니 매 순간이 공연의 시작인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무대와 객석이 거의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활용해 공연 틈틈이 관객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더 큰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현중 훈련부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3학년 박한결 단원의 답변 또한 바람의 사신단을 향해 있었다. 당시 막 입단한 신입생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그는 불행하게도 2024년 바람의 사신단 공연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다.

“공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시범단이 정상에 올랐을 때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고, 일종의 부채 의식도 있었는데요. 작년 주축 멤버로 공연에 나선 끝에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배 단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신입생 강유라 단원은 “선배님들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며 말을 이었다.

“아직 바람의 사신단 공연에 나서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무대인 줄은 몰랐는데요. 시범 역량을 높이면서도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의 공연이 더욱 기대됩니다!”



화성 뱃놀이 축제의 비공식 홍보대사를 자처하다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올해 바람의 사신단 공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올해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팀 자격으로 초청 공연에 나선다. 김기남 감독은 “경연팀이 아닌 초청 공연팀으로서 축제 무대에 오르는 만큼, 이번에는 아예 ‘뱃놀이’를 콘셉트로 삼은 공연을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겨울방학 때부터 공연 구성 및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화성 뱃놀이 축제> 이전에 개최되는 영월 <단종문화제>, 연천 <구석기축제> 등 다른 축제 공연에서 <화성 뱃놀이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축제의 주제에 맞는 공연을 별도로 준비하되, 노래와 안무에 뱃놀이를 연상시키는 구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다음 날이 행선지를 <화성 뱃놀이 축제>로 정하도록 자연스럽게 안내할 계획이다.

“화성 뱃놀이 축제의 공식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가 자리한 지역의 대표 축제이자 우리 시범단 공연이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행사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종의 비공식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려고 합니다. 작년 축제에 27만여 명이 다녀갔다는 뉴스를 봤는데, 올해는 방문객 3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남 감독은 <화성 뱃놀이 축제>와 더불어 바람의 사신단 공연에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수십 개 팀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데다가, 공연 무대와 객석 사이의 간격도 좁아서 무대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초청 공연도 많이 보러 와 달라고 말한 김기남 감독의 눈빛에는 5월에 펼쳐질 전곡향에서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활동기간 2018년~

회원구성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공연문의 010-3610-5928(김기남 감독) /

인스타그램 @hsmu_tkd_demoteam

왜 우리는 다시 느끼고 불편한 것을 선택할까

빠르고 편리한 AI·디지털 시대.

하지만 느끼고 손에 잡히는 것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금 시대가 선택한 '진짜 경험'은 무엇일까.

글 방연주 대중문화평론가



중년의 히라야마는 도쿄의 공중화장실을 돌며 하루를 보내는 청소부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맨션에서 산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집 앞 자판기에서 뽑은 캔 커피를 들고 작은 승합차에 올라타면 그의 하루는 흘러간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느 순간 미묘하게 달라진다. 카오디오에 카세트테이프를 밀어 넣는 순간, 그의 시간은 흐른다. 영화 <퍼펙트 데이>의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의 흐름과는 어딘가 다른 결을 지닌다.

기술 과잉 속 아날로그의 반격

0과 1의 데이터로 환원되는 디지털·AI 시대, 모든 것은 빠르게 흘러간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1분 남짓의 ‘숏폼’ 콘텐츠가 일상을 장악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본방 사수’하던 드라마의 자리를 이제는 90초짜리 숏드라마가 대신하고 있다는 말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음악 역시 다르지 않다. 음반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재편된 지금 우리는 앱을 터치하는 순간 원하는 곡을 재생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시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LP(바이닐 레코드판)를 꺼내 바늘을 올리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종이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속도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느림의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

K팝 업계에서는 음원과 함께 LP를 발매하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보다 특별하게 소장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 더해지면서 옛 음반의 재발매는 물론 아이돌 가수들의 특별판 LP 출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BTS의 정규 앨범 LP 버전 역시 출시와 동시에 품절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런 흐름은 국내 시장만의 특이한 현상일까. 그렇지 않은 않다. 미국, 영국, 독일의 Z세대 응답자 가운데 87%가 LP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LP를 직접 만져본 적 없는 세대가 LP를 구매하고 이를 ‘힙한 물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트로 열풍과 맞물려 느낌을 즐기고자 하는 감각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색적인 공간도 등장했다. 1970~80년대 신청곡을 틀어주던 음악다방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빠르리를 잠시 벗어나 오롯이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청음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내 손안의 휴대폰으로 모든 곡을 찾아 들을 수 있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도 말이다. 청음실의 형태도 다양하다. 턴테이블 위에서 LP가 돌아가는 공간부터 하이엔드 스피커와 정교한 음향 시스템을 갖춘 청음 공간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경험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보낸다.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험이 목적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텍스트힙(Text Hip)’ 현상으로도 이어진다. 콘텐츠를 배속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독서 습관이 급부상하고, 종이책을 읽으며 활자에 깊이 몰입하는 행위가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소유함으로써 디지털 텍스트가 지니지 못한 ‘지적 아우라’를 누리려는 태도와도 맞닿아있다. 장강명 작가는 AI 시대를 통찰한 <먼저 온 미래>에 이어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을 펴내기도 했다. 700쪽에 달하는 ‘벽돌책’을 읽으며, 쉽게 넘여가지 않는 책장을 버텨내는 ‘경험’ 자체를 이야기한다. ‘텍스트힙’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방식인 동시에 빠르고 편리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일부러 느리고 번거로운 과정을 택해 ‘경험의 밀도’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 MBC 드라마 '궁' 포스터



과거가 아니라, 검증된 형식

왜 우리는 과거를 찾을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이미 감각적으로 검증된 형식을 다시 호출하는 일에 가깝다. 레트로와 물성에 대한 선호가 손에 잡히는 경험을 통해 ‘진짜’를 확인하려는 흐름이라면, 대중문화에서는 그 욕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그 답은 ‘오리지널’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진다.

예능에서도 기술적 기교를 덜어낸 정통 포맷이 다시 주목받는다. 숏폼 콘텐츠가 일상을 점령한 가운데 ‘롱폼’ 토크쇼의 부활은 흥미롭다. 무대는 유튜브로 옮겨졌지만, 과거의 오리지널을 자연스레 끌어온다. 유튜브 채널 ‘뜬뜬’의 예능 <핑계고> 100회 특집은 1시간 54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10여 일 만에 조회수 1천만 회를 돌파했다. 과거 토크쇼처럼 보이지만, 촌촌한 대본 대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담’이 중심을 이룬다. 나영석 PD가 이끄는 채널 십오야의 <나불나불(와글와글)>,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토크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요정식탁> 역시 과거 토크쇼의 형식을 오늘의 방식으로 되살린 사례다.

드라마 콘텐츠에서도 흐름은 이어진다. ‘오리지널’의 리메이크가 하나의 경향처럼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라 할 <수사반장>은 프리퀄 드라마 MBC <수사반장 1958>로 돌아왔고, 국내 최초 SF 스릴러로 평균 시청률 38%를 기록한 MBC <M>(1994)은 <M: 리부트>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한류 드라마’의 상징과도 같은 MBC <대장금>(2003) 역시 리메이크가 확정됐다. 의녀가 된 서장금의 일대기를 다룬 <의녀 대장금>은 주연 이영애가 출연을 결정했고, 하반기 촬영을 준비 중이다. 윤은혜·주지훈 주연의 MBC <궁>(2006)도 리메이크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추억의 드라마를 다시 불러내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대중음악에서의 ‘오리지널 찾기’는 보다 감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뉴진스는 1990년대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오래된 미래’를 제시했다. 데뷔곡으로 멜론 차트 1위에 오른 걸그룹이 6년 만이었다는 점도 의미 있지만 인상적인 것은 그 반응의 결이다. 이들의 음악은 1990년대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향수를, 그렇지 않은 세대에게는 ‘낯선 신선함’을 안기며 세대를 가로지르는 오리지널리티의 힘을 보여줬다. 문학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한로와 최유리의 음악 역시 실제 악기 연주와 서정성을 통해 ‘손으로 쓴 음악’의 가치를 환기한다. 사람들이 과거의 형식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검증된 서사는 유통기한이 없어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복고를 넘어 오늘날 ‘오리지널리티’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다.

AI 시대, 오리지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I가 단 몇 초 만에 이미지와 문장을 생성하는 시대, ‘오리지널리티’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가보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에 가까워 보인다. 무한한 복제와 생성이 가능한 환경에서 대중은 결과 자체보다 그 이면의 맥락과 시간을 함께 소비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정점으로 향할수록 어려워지기도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의 만들새에서도 읽힌다. 앞서 언급한 나영석 PD의 유튜브 콘텐츠는 화려한 편집이나 정교한 연출을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카메라 뒤 스태프와의 대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 길게 이어지는 사담까지 고스란히 드러낸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는 데 가깝다. 과거 방송 문법이라면 ‘편집 당할’ 장면들이 핵심이 되는 셈이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콘텐츠의 힘으로 작동한다.

대중음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가수 AK MU가 발표한 앨범 <개화>는 음악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음악이 어떤 시간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소비된다. 이수현이 슬럼프를 겪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알려지면서 곡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처럼 받아들여진다. 듣기 좋은 멜로디나 완성도 높은 사운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층위가 생겨나는 것이다. ‘왜 이 노래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결과물 바깥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가 김애란은 AI와 인간의 차이를 “망설임”이라고 말했다. 대중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망설임, 선택의 흔적까지 함께 읽어내며 ‘진짜’를 가늠한다. 결국 오늘날의 오리지널리티는 흔들림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과정에서 깊은 공감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손에 잡히는 물성을 찾고, 오래된 형식을 다시 불러오며, 누군가의 시간을 통과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 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들여 ‘감각을 통과하는 경험’을 택한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감각이 깃든 곳에서 우리는 오래 머문다.

어두운 저녁, 히라야마는 카 오디오에 카세트테이프를 ‘딸깍’ 밀어 넣고 운전대를 잡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수 Nina Simone의 ‘Feeling Good’이 흘러나온다.

“And this old world is a new world(이 오래된 세상이 내겐 새로운 세상이야)

And a bold world, for me(그리고 대담한 세상이지, 나에게에는)”



© 영감의 센터 인스타그램

익숙함이 건네는 다정함

글·그림 언닐브(@un.nerve)

나는 종종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에게 돌아가곤 했다.
음악도 그랬다.

아주 오래간만에 최신 음악 차트를 열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것들인지,
또 내가 유행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볍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곧이어 차트 맨 위의 1위 곡을 재생해 본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몇 초쯤 흘렀을까.
리듬도, 멜로디도, 가사도 귓속 깊이 닿지 못한 채
귓바퀴 언저리만 괜히 간지럽히고 스쳐 지나갔다.
실로 잘 만들어진 노래라는 건 듣자마자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어렵잖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차트 1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노래를 찾아 듣지 않게 되었다.
유행의 흐름에서 제법 멀어졌다는 게 확실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해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듯,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는 일에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인지도 모른다.



역시... 아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



*누군가 보고 싶어질 때



- 이소라
-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허나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사랑인걸요]



*때론 쓸쓸함이 부족할 때



- 김동률
- 기억의 습작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위로가 간절할 때



- 유재하
- 가리워진 길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결국, 늘 듣던 귀에 익은 노래들을 찾아간다.

몇 년을 들어도, 몇 시간을 한 곡 반복한다 해도

좀처럼 질리지 않는 나만의 리스트가 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알게 된 노래, 애절한 라디오 사연 뒤에 흘러나오던 노래,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귤가에 들어온 노래 등등.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들이 모여있는 리스트.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혹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때마다 필요한 노래를 자연스럽게 꺼내 듣는다.

여름 끝자락의 아침 바람이 부쩍 서늘해질 때면

어떤 노래는 공허한 마음을 채워 주었고,

파도가 느리게 밀려오는 겨울 바다 앞에서는

쓸쓸함을 조금 더 깊게 느끼고 싶어 잔잔한 노래를 들었다.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던 순간에는

간절한 가사 한 줄이 나를 붙잡아 주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시간들에 익숙함을 덧대며 살아왔으며,

노래는 내 인생 사이사이에 꽃혀 있는 책갈피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 갈피를 따라 언제나

원하는 계절로, 그리운 장소로, 특정한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읽어 내려가듯

찬찬히 되짚어 볼 수도 있었다.

넓게 소비하고 빠르게 지나치는 것보다

이미 좋아하는 것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오늘도 자연스레 익숙한 노래를 하나 꺼내 재생한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며 햇볕이 살짝 따가워지기 시작한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수년째 들어 온 가사와 멜로디 속에서 나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진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나는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진다.
 작년 이맘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같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계절을 지나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 해도 노래는 변하지 않는데
 그 노래를 듣는 나는 계속해서 변해 간다.
 그래서 나는 익숙함 속에서 매번 새로운 나를 만나기도 한다.
 익숙한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습관은
 변화를 거부하려는 까다로운 고집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온 시간을 쉽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아쉬운 마음들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
 새롭고 멋진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오늘도 이미 알고 있는 가사를 흥얼거리고
 변함없는 멜로디에 고개를 까딱거리며
 지나온 나의 시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유행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취향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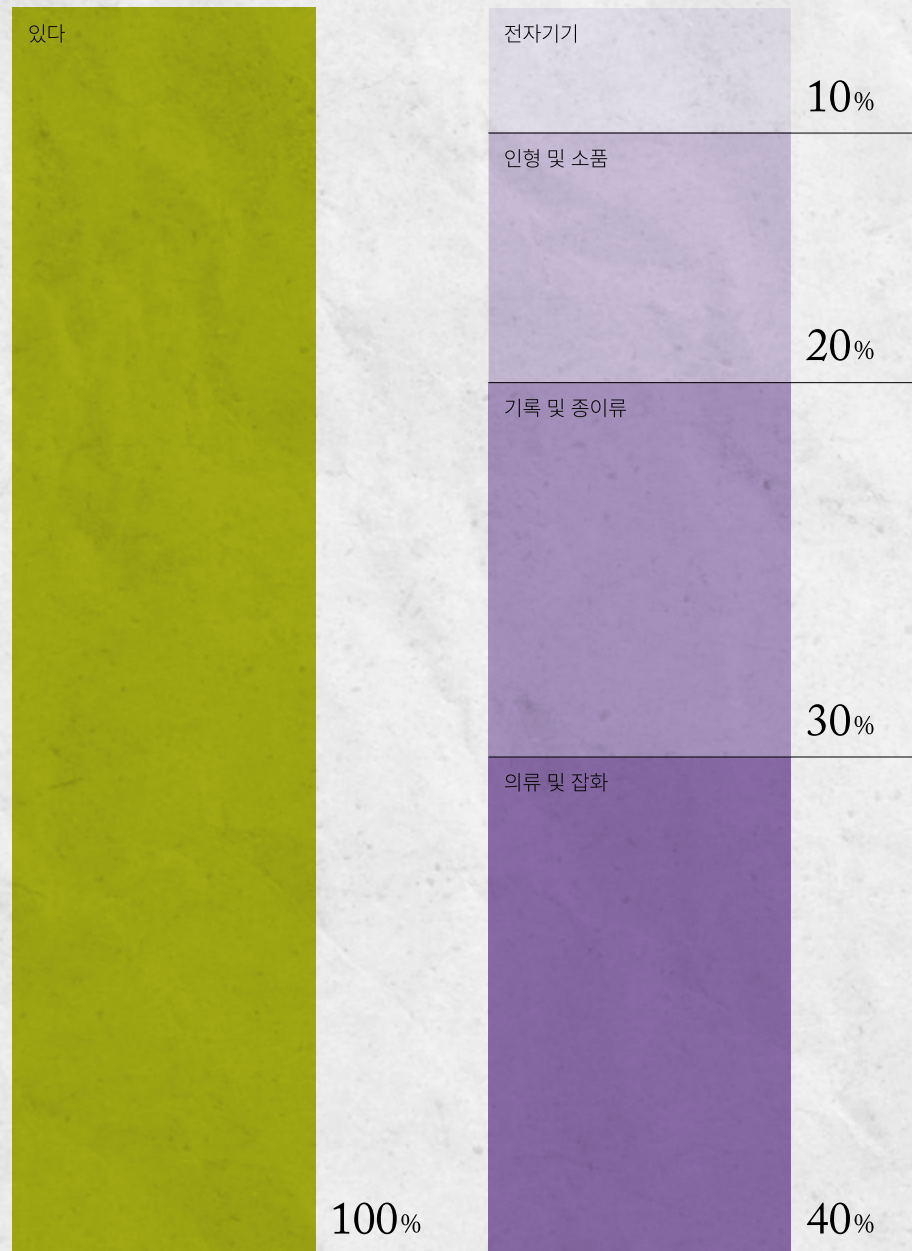
《화분》독자 참여 앙케트

남들에겐 그저 오래된 물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위로와 안정을 주는 든든한 존재들이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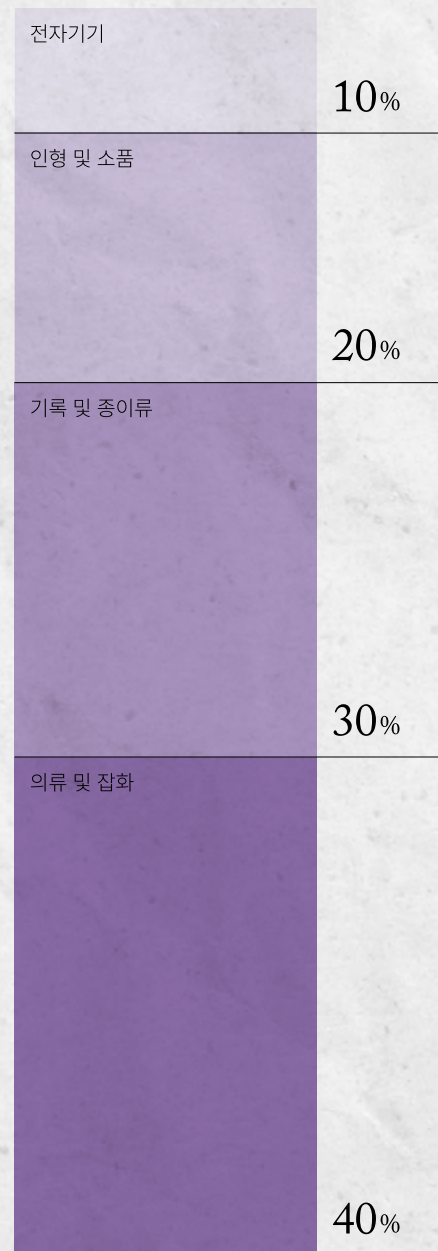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여러분의 단단한 취향을 앙케트에 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물건에 마음을 기대며 살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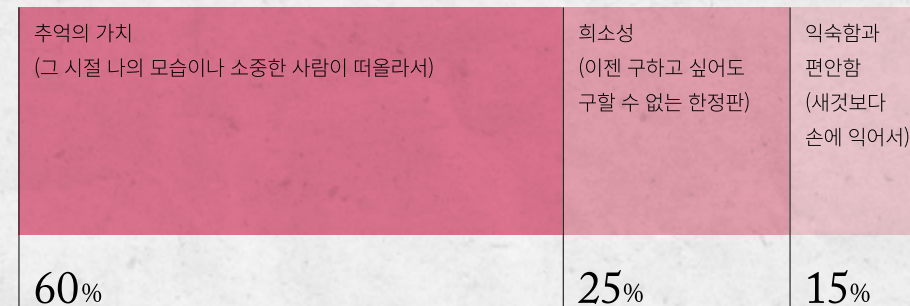
유행이 지났음에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애착 물건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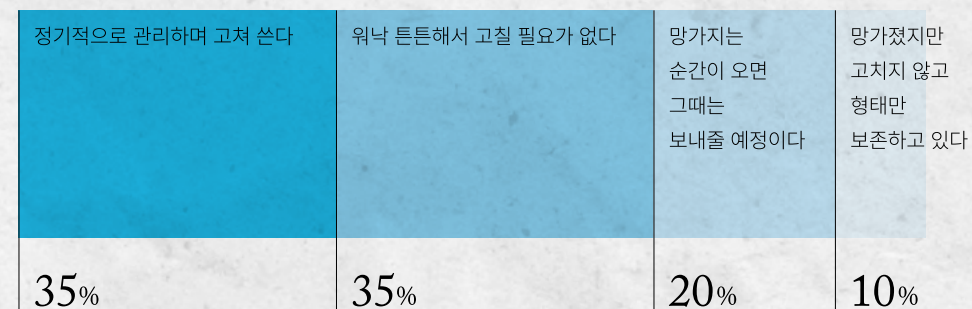
그 물건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나요?



애착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물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선 및 수리를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이 애착 물건과 언제까지 함께할 계획인가요?



애착 물건과 그 물건에 얹힌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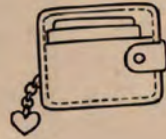


제 애착 물건은 가디건입니다. 15년 넘게 함께해 온 물건이에요.
부산 여행 중 카페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카페 사장님의 배려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려요.

떠난 강아지가 타던 개모차요. 활발한 성격에 개모차를 타도
바깥을 보고 싶어서 머리를 내밀었는데...
강아지의 흔적이 남아 있어 아직도 집 한 편에 보관 중입니다.



저의 애착 물건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구매했고,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많은 추억이
담겨 있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덕질을 시작하며
최애 인형을 구입했어요.
학창시절에도 안 한 덕질을
30대에 하려니 민망하기도
하지만, 인형을 마주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아빠가 “이제 어른이니까 제대로 된
지갑을 써라” 하시면서 건네주신
카드지갑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안에 응원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더군요.



몇 년 전, 혼자 떠난 제주 여행에서 파도에 깔려 둥글둥글해진 돌 하나를 주워 왔어요.
책상 위에 두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는데,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모양은 뽀뽀뽀뽀하고 털실도 거칠지만,
유난히 추운 날엔 꼭 할머니가 떠준 목도리에 손이 가요.
목에 두르면 할머니 댁 거실의 특유한 냄새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미국 유학 중일 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고심 끝에 샀던 모자.
화사한 분홍색이던 모자는 함께해온
세월을 말해주듯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같이했기에 볼 때마다 애정이 갑니다.



저의 애착 물건은 아빠랑 같이 만든 연필꽂이입니다.
어릴 적 만든 거라 모양은 투박하지만,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있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대물림받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고민 해결을 위해 분투하던 제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여태 가지고 있어요.

7백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층층의 신비와

17km 황금해안길의
비로소 완성되는 눈부신 심포

낭만이 만나

Walk

이야기가 깃든 자리를 함께 거닐다

82

Travel

서해의 노을과 낭만에 풍덩

화성 서부해안 1박 2일 여행

92

이야기가 깃든 자리를 함께 거닐다

용건릉의 솔숲, 제암리의 그늘, 당성의 옛 자취, 매향리의 바람 등 한 사람의 목소리를 더해야 비로소 살아나는 자리들이 있다. 그 자리마다 이야기를 풀어 두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다. 이번에는 봄별 좋은 어느 날, 용주사에서 두 해설사를 만나 그 자리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글 강나은(편집실) 사진 김경수(싸우나스튜디오)



한 도시의 결을 잇는 사람들

현재 화성시에는 총 3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다. 용건릉, 용주사,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화성 당성, 우리꽃식물원, 매항리평화생태공원, 궁평 오솔로 등 일곱 개 해설소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화성시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은 화성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용건릉의 경우만 유선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한 도시 안에 고르게 흩어져 있는 화성에서 해설사들은 곳곳의 결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해설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전달력을 다지기 위해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관람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스토리 텔링 기법, 긍정적인 응대 태도를 다지는 웃음 치료,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익히는 소방안전교육까지. 한 사람의 해설 뒤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시간 이 있다. 그 시간이 정해진 스크립트 바깥의 이야기를, 그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한 토막을 만든다.





흐르는 말이 아닌 생각을 머물게 하는 말

해설사라는 자리에 닿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다. 조완제 해설사는 오랫동안 여행업계의 가이드로 일하며 길어 올린 시간을 풀어 두고 싶어 이 길에 들어섰다.

“여행업계에서 가이드로 오래 있었어요. 하다 보니 제가 역사를 알리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로 이사 와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되었죠.”

조완제 해설사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이 성격과 이 일이 딱 맞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사람을 대하는 일도 좋아해요. 깊지는 않아도 제가 가진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기쁘고요. 새로운 곳에 와서 무언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앞에서 기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하죠.”

한찬우 해설사가 이 길로 들어선 사연은 또 다르다.

늦은 나이에 관광학과에 들어가면서 만난 답사의 즐거움이 마음 한구석에 막연한 바람 하나를 키웠다.

“답사를 가면 늘 해설을 듣잖아요. 그때마다 막연하게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해설을 듣던 자리에서 풀어내는 자리로 옮겨 앉은 뒤로는 시선이 달라졌다.

“들을 때는 좋아하는 내용만 듣고, 관심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다’, ‘지루하다’라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두 사람의 길은 달라도 결국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며 풍경을 다시 읽어 내는 일에 마음이 닿았다는 점은 같았다.

스크립트 바깥의 이야기

해설사들은 각자의 스크립트가 있다. 해설사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같은 해설사가 하는 해설이라고 해도 오시는 분들에 따라 30분부터 1시간 30분까지 시간도,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정해진 스크립트 밖으로도 해설은 뻗어나가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든다. 조완제 해설사는 사찰 입구의 행랑채를 두고 짧은 퀴즈를 던진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행랑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질문 앞에 용주사를 찾은 이들은 생각에 잠긴다. 정답은 바로 ‘줄행랑’이다. 여기부터 옛 대감집과 하인들이 사는 행랑채 이야기가 풀려나온다. 한찬우 해설사는 역사 속 한 인물을 ‘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토막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스크립트 주변을 맴도는 이야기가 나와도 공간은 생생하게 살아난다.

해설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 공간처럼 해설을 듣는 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날 때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정말 다시 보이네요’라는 인사에, 혹은 ‘지난번에 30분짜리 해설을 듣고 아쉬워서 이번에는 90분 시간 비우고 왔어요’라는 재방문에 해설사들은 자신의 해설이 그저 흐르는 말이 아닌 한 장면에서 생각을 머물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무늬 하나가 남고, 풍경 위로 한 시대의 이야기가 한 겹 더 얹힌다.

여행의 재미를 찾아주는 문화관광해설

여행 중 어느 자리에서든 자연스럽게 화성과 만나고 싶다면, 시 곳곳에 자리한 관광안내소가 든든한 동행이 된다. 동탄센트럴파크, SRT 동탄역, 그리고 전곡항 마리아 클럽하우스에 각각 안내소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의 입구, 가족들의 산책길,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행자를 맞이한다. 그날의 일정에 어울리는 추천 코스, 가까운 명소와 이동 동선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낸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안내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이들도, 발길 가는 대로 걷고 싶은 이들도 잠시 들러볼 만하다. 용주사를 다 둘러보고 길을 나서며 늘 가까이에 있던 풍경 하나가 새삼스러워졌다. 화성에는 이런 자리가 곳곳에 숨어있고, 그 자리들에는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다음 여정은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도 좋겠다.

용주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7-2
031-234-0040



문화관광 해설소



- 용주사**
- 주소 용주로 136, 주차장 내 컨테이너
 - 전화번호 031-221-6987
 - 운영시간 09:30~16:30
 - 통합예약시스템 11~12시 / 14~15시(정원 90명)



- 용건릉**
- 주소 효행로481번길 21, 용건릉 입구 매표소 옆
 - 전화번호 031-223-8364
 - 운영시간 09:30~16:30
 - 정규해설 10~11시 / 14~15시 (1~1.5시간 소요)
 - 비정규해설 11시, 13시, 15시
 - ※ 통합예약시스템 불가



-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 주소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1층 공용주차장 화장실 옆
 - 전화번호 031-354-1295
 - 운영시간 10:00~17:00



- 우리꽃식물원**
- 주소 팔탄면 3.1만세로 777-17, 분수광장 앞 컨테이너
 - 전화번호 031-354-4384
 - 운영시간 10:00~17:00
 - 통합예약시스템 10:30~11:30 / 14:30~15:30(정원 40명)



- 화성 당성**
- 주소 서신면 제부로 1069, 방문자센터 내
 - 전화번호 031-354-9144
 - cf. 방문자센터 031-357-0265
 - 운영시간 09:30~16:30
 - 통합예약시스템 10:30~11:30시 / 14~15시(정원 40명)



- 궁평 오솔로**
- 주소 서신면 궁평관광로 153번길 9-9, 관리동 옆 컨테이너
 - 전화번호 031-355-4610
 - 운영시간 10:00~17:00
 - 정규해설 10:30 / 14:00



- 매항리평화생태공원**
- 주소 우정읍 고온리안길 24-13, 주차장 입구
 - 전화번호 031-358-8053 - 운영시간 10:00~17:00
 - 통합예약시스템 10:30~11:30 / 14~15시(정원 40명)

관광 안내소



- 동탄역**
- 주소 동탄역로 151 동탄역사 지하 4층
 - 운영시간 10:00~17:00



- 동탄센트럴파크**
- 주소 동탄공원로2길 22
 - 운영시간 10:00~17:00



- 전곡마리나**
- 주소 서신면 전곡항로 5
 - 운영시간 10:00~17:00

※ 동절기(1~2월) 30분 단축 운영
※ 기존 공룡알화석산지 해설소는 지질공원해설소로 운영

서해의 노을과 낭만에 풍덩

화성 서부해안 1박 2일 여행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가장 빠르게 서해의 낭만을 만날 수 있는 곳. 경기도 화성시 서부해안 일대는 요트가 정박한 이국적인 마리나와 황홀한 일몰, 그리고 새롭게 개통된 해안 데크길까지 갖춘 최적의 체류형 여행지다. 2025년 말 문을 연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하는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글·사진 여행작가 임운석



서해의 낙조를 품은 완벽한 쉼터,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궁평관광지의 고즈넉한 솔밭과 맞닿은 곳, 서해의 붉은 노을을 오롯이 담아내는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지난해 말 문을 열었다. 이곳은 편리한 숙박 시설은 물론이고, 서해 낙조를 품은 감성적인 풍광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여행객들에게 옹골찬 하루를 선사한다.

로비에 들어서면 순간 마주하는 1층 북카페는 이곳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다. 감각적인 인테리어 속에 엄선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어, 창밖의 풍경을 배경 삼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다.

활동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면 2층 스포츠 체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최첨단 스크린 게임부터 양궁, 사격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이색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내기를 즐기며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숙소 안에서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체류형 휴양지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객실은 여행자의 취향과 인원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연인이나 젊은 부부의 로맨틱한 하룻밤을 완성해 줄 아늑한 2인실부터, 3대가 함께 머물러도 넉넉한 6인실 스위트까지 다양하다. 특히 ‘코너스위트’는 이곳의 백미다. 탁 트인 파노라마 뷰를 통해 백미리 갯벌 위로 떨어지는 붉은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객실 내 마련된 대형 욕조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에게는 반신욕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치유의 공간이 된다. 더불어 4인실 하프오션뷰는 장애인 친화 객실로 꾸며져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름 시즌의 주인공은 단연 야외 수영장이다. 성인풀과 유아풀로 나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낮의 열기를 식힌 뒤에는 루프탑에 올라보자. 선베드에 누워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아스라이 펼쳐진 서해의 밤 풍경은 여행의 설렘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인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파도 소리와 섞여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다.





비로소 완전체로 마주한

화성 황금해안길 17km

여름날 서해는 짙은 푸른빛을 머금는다.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몸을 숨길 채비를 할 때, 화성의 바다는 제 이름을 증명하듯 비로소 황금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한다. 올해 개방을 앞둔 ‘화성 황금해안길’은 제주도에서 궁평항까지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17km의 대장정이다. 과거 군사 철책에 가로막혀 멀리서 바라만 보던 해안선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단절 없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해의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정의 시작점인 제주도 해안가에는 바다를 품은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줄지어 서서 여유로운 풍광을 자아낸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매끄럽게 뽀은 해안데크길에 올라서면, 발밑으로 찰랑이는 파도 소리와 저 멀리 보이는 탄도항의 풍경이 걸음마다 활기찬 리듬을 더한다.

황금해안길의 묘미는 구간마다 표정을 바꾸는 다채로운 풍경에 있다. 첫 번째 코스인 ‘낙조경관길(5km)’은 광활한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구간이다. 시원한 해풍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고, 탁 트인 전망은 일상의 답답함을 단숨에 씻어내 준다. 이어지는 ‘소금바다길(4.5km)’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염전의 정취와 곧게 뻗은 제방길이 시원하다. 바다와 나란히 걷는 이 길은 그늘이 많지 않으므로, 쾌적한 여행을 위해 양산이나 모자, 시원한 생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길의 대미는 마지막 구간인 ‘궁평관광길(7.5km)’이 장식한다. 활기 넘치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을 지나 궁평관광지에 닿으면, 수령 100년이 넘는 해송 1,000여 그루가 웅장한 군락을 이뤄 여행자를 반긴다. 울창한 소나무 그늘에 돛자리를 펴고 누우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말끔히 식혀준다. 바다 내음 섞인 솔향기를 맡으며 폭신한 솔잎길을 밟는 경험은 황금해안길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해송 숲 바로 앞은 화성 8경 중 하나인 ‘궁평낙조’로 이름난 궁평해변이다. 완만한 경사 덕에 물놀이를 즐기기도 좋고, 썰물 때면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온 가족을 위한 생태 체험의 장으로 변한다.

다채로운 바다 풍경과

7백만 년의 시간이 공존하는 곳

새파란 서해를 배경으로 하얀 요트들이 점점이 떠 있는 이국적인 풍경. 전국항 마리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다. 계류장에 정박한 수많은 요트와 보트들은 이곳이 대한민국 해양 레저의 메카임을 증명한다. 특히 전국항 마리나에서는 누구나 쉽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제주도 일주 코스’다. 1인당 3만 원 내외의 요금으로 요트에 몸을 실을 수 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빨간 등대와 하늘을 가르는 케이블카의 풍경은 육지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원한다면 프라이빗한 단독 투어나,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 나가는 ‘선셋 투어’를 추천한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요트 위에서 갈매기 떼와 함께 바다를 가르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전곡항 마리나에서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한다.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 활동의 흔적을 간직한 ‘충상응회암’ 군락이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전곡항 충상응회암 해상관찰로 데크를 따라 걷노라면 공룡이 거닐었을 법한 퇴적암층의 뚜렷한 층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파도에 깎이고 바람에 씻긴 바위들은 억겁의 세월을 견뎌온 예술 작품처럼 장엄하다.

바다의 비경을 만끽한 뒤에는 ‘전곡항 수산물센터’로 발걸음을 옮길 차례다. 이곳은 전곡항 어촌계 어민들이 화성 앞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린 자연산 해산물만을 취급한다. 세련된 인테리어나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대신 갓 잡아 올린 활어들이 수조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다. 제철을 맞은 광어와 우럭, 농어, 참돔 등이 대략 7만 원 선이었던 상 가득 차려진다. 어민들의 투박하지만 넉넉한 손길로 썰어낸 회 한 접은 특유의 탱글탱글하고 찰진 식감이 일품이다. 게다가 씹을수록 고소한 감칠맛을 내뿜으며 생동감 있는 바다의 풍미가 온몸으로 퍼진다.

센터 내부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하다. 제철 해산물을 추천하는 상인들의 걸걸한 목소리와 적당한 덤을 주고받으며 오가는 정겨운 흥정 소리는 기분 좋은 백색소음이다.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풍경 속에서 즐기는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미식을 넘어, 일상의 무로함을 단숨에 씻어내 주는 강렬한 에너지가 된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공평관광로153번길 39

문의 031-357-0924



전곡항의 하루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몸을 낮출 때 비로소 그 절정에 달한다. 서해랑 해상케이블카에 올라 바라보는 낙조는 가히 장관이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홍빛으로 물드는 찰나, 전곡항의 요트들은 검은 실루엣이 되어 황금빛 바다 위를 떠다닌다. 이 고요한 순간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붉게 물들인다.

전곡항의 낙조를 관람했다면, 궁평항의 야경도 반드시 즐겨야 한다. 붉은 노을이 저문 뒤 밤이 깊어지면 궁평항은 또 다른 신비를 드러낸다. 특히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파도가 일거나 물결이 칠 때마다 푸른빛이 반짝이는 ‘야광충’이 나타나, 마치 은하수가 바다로 내려앉은 듯 몽환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낮의 먹거리와 산책의 여운 위에 더해지는 궁평항의 밤바다는 여름날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준다.

서부해안 1박 2일 추천 코스

서해마루유스호스텔은 오후 3시 입실해서 다음 날 오전 11시 퇴실한다. 유스호스텔의 시설을 100% 즐기면서 알찬 여행까지 겸하고 싶다면 추천 코스를 참고하자.

<1일차>

10:00 황금해안길 도보 여행

12:00 전곡항 수산물센터 점심,

전곡항 충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산책

15:00 유스호스텔 입실, 수영장, 북카페,

스포츠 체험실 이용

19:00 주변 맛집 탐방, 궁평항 야경&야광충 찾아보기

<2일차>

07:30 유스호스텔 조식

*예약제 운영, 유스호스텔 전체 식사 인원이 40명 미달 시 예약 취소

09:00 루프탑에서 바다명

11:00 궁평관광지 산책 또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체험 후 귀가



THE 하다
preview

‘공연,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더하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5~6월 공연 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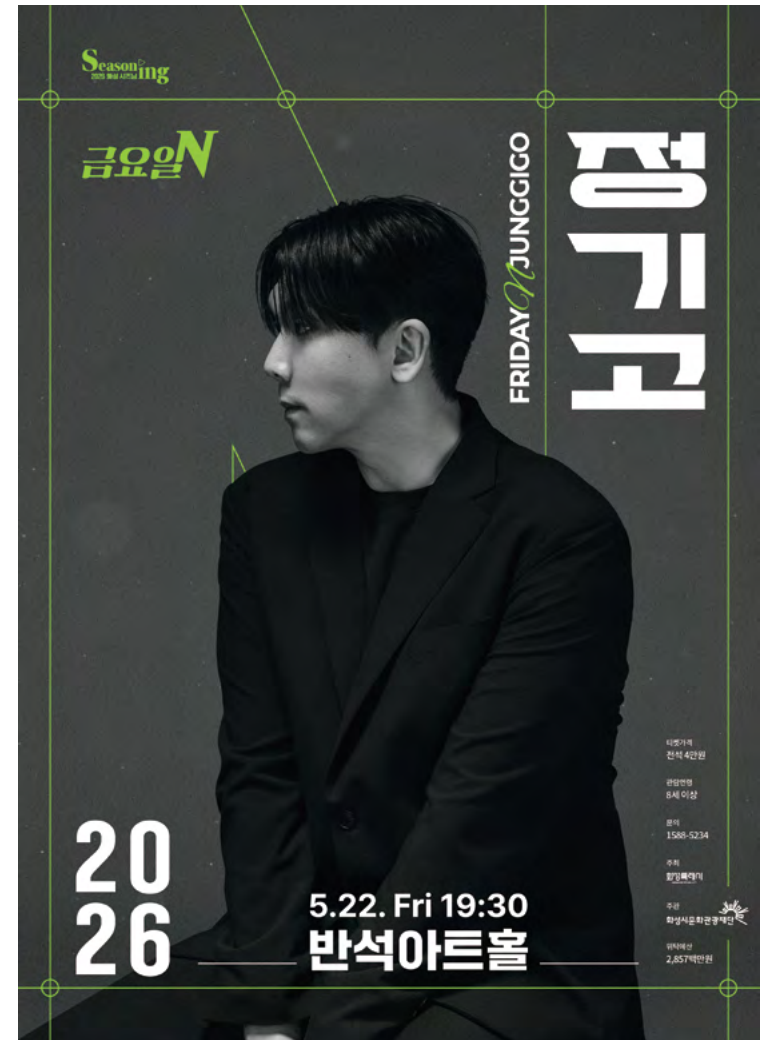
싱그러운 봄과 초여름이 이어지는 5~6월, 화성·반석·누림 아트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이야기로
계절의 순간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문의 1588-5234

‘감미로운 보컬로 채우는 금요일 밤’ 금요일N <정기고>

섬세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지닌 아티스트 정기고가 재즈 라이브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여유가 필요한 금요일 밤, 음악과 함께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 R&B와 소울을 기반으로 한 감미로운 보컬과 완
성도 높은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일상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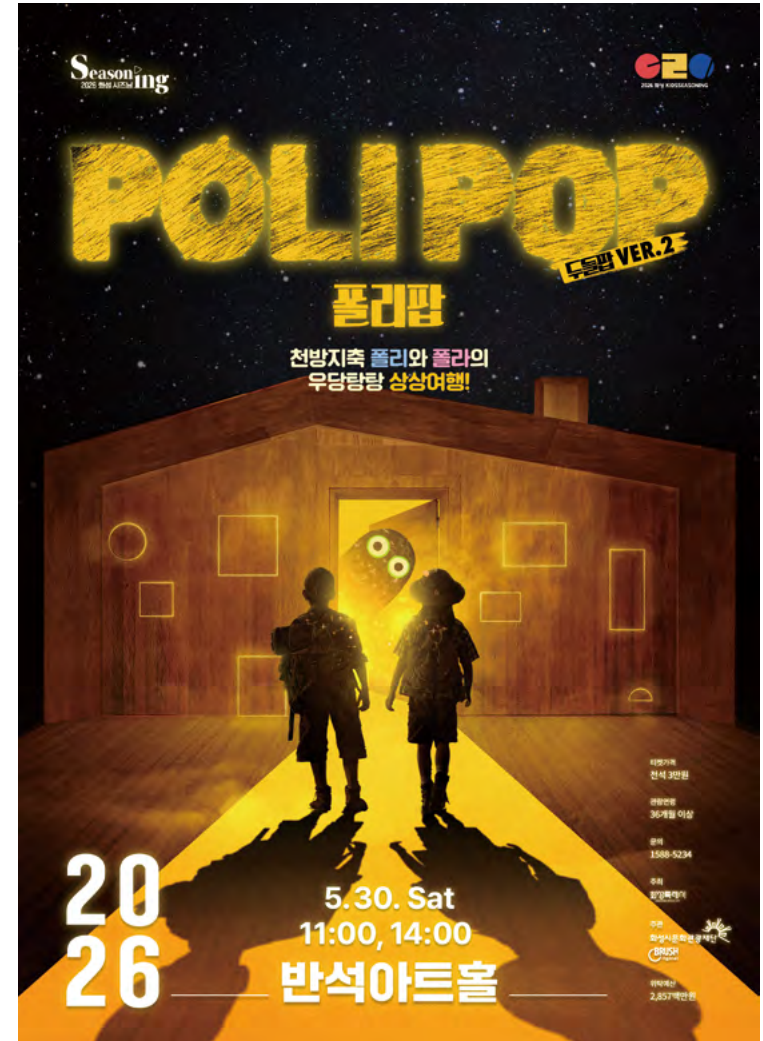
‘자연 속에서 즐기는 감성 음악 피크닉’
반석산 피크닉 <옥상달빛×장들레> / <조지×SOLE>

봄의 끝자락과 초여름의 문턱, 반석산의 잔디 위에 감성이 내려앉는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옥상달빛과 장들레, 그리고 감각적인 R&B 사운드의 조지와 SOLE까지, 서로 다른 색의 음악이 자연과 어우러져 흐른다. 돛자리 위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음악에 기대는 시간. 도심 가까이에서 만나는 가장 여유로운 피크닉이 펼쳐진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색과 소리의 세계’
키즈 시즈닝 <폴리팝>

빛과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채로운 영상과 체험형 요소가 결합한 몰입형 뮤지컬 폴리팝. 무대와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상상의 순간을 선사한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한 자루의 총, 그 시간을 따라가는 이야기’

연극 <빵아>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연극 <빵아>. 1945년에 탄생한 ‘99식 소총’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와 탄탄한 서사가 어우러져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동양철학의 미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태평성대의 춤’

렉처 콘서트 <궁중무, 아름다운 태평성대의 춤>

역사와 예술, 동양철학이 어우러진 궁중무 ‘정재’의 깊이를 해설과 함께 만나는 렉처 콘서트.

풍류양상블의 품격 있는 라이브 연주로 전통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무대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흥과 에너지’
트로트 스타즈 <김수찬 with 밴드 트로티카>

‘트로트 왕자’로 사랑받아 온 김수찬이 밴드 트로티카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탄탄한 가창력과 재치 있는 무대 매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구성까지. 생동감 있는 밴드 사운드와 어우러진 무대가 관객과 호흡하며 현장을 한층 뜨겁게 채운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5~6월 공연 정보



금요일N <정기고>
일시 2026. 5. 22.(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4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반석산피크닉
<옥상달빛×장들레>
일시 2026. 5. 23.(토) 17:00
장소 야외공연장
가격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잔디석(비지정석) 3만 원
대상 전체관람가



키즈시즈닝
<인터랙티브 뮤지컬 폴리팝>
일시 2026. 5. 30.(토)
11:00/ 14: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3만 원
대상 36개월 이상



반석산피크닉
<조지×SOLE>
일시 2026. 6. 6.(토) 17:00
장소 야외공연장
가격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잔디석(비지정석) 3만 원
대상 전체관람가



연극 <뽕야>
일시 2026. 6. 13.(토) 14:00
2026. 6. 14.(일) 14: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렉처 콘서트 <궁중무,
아름다운 태평성대의 꿈>
일시 2026. 6. 24.(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트로트 스타즈 <김수찬 with
밴드 트로티카>
일시 2026. 6. 26.(금) 19:30
장소 누리아트홀
가격 전석 5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 문의 1588-5234
※ 상기 공연 일정 및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선물

화성예술의전당 5~6월 공연 프리뷰

스크린 속 감동을 깨우는 웅장한 합창부터 북유럽의 환상을 담은 파격적인 현대 무용,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명 나는 연희판까지. 2026년 화성예술의전당이 장르와 세대를 초월한 최고 수준의 라인업으로 당신의 오감을 깨울 준비를 마쳤다.



스크린 속 명곡을 오케스트라 선율로 재해석하다 국립합창단 <Cinema Classics>

‘국립합창단’의 〈시네마 클래식〉은 전 세계 관객에게 사랑받아 온 영화 속 명곡들을 클래식 합창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무대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OST가 합창단의 깊이 있는 하모니와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연주를 만나 한층 더 드라마틱한 감동으로 재탄생한다. 영화 속 장면이 떠오르는 익숙한 선율들이 웅장한 합창 구성으로 확장되며, 음악이 지닌 감정의 결이 더욱 섬세하게 전달된다. 관객은 클래식과 영화 음악이 만나는 독창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몰입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한 무대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음악 애호가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세계적 안무가의 파격적 걸작을 만날 볼 수 있는 꿈의 기회!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 경험’,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알렉산더 에크만’을 세계적인 안무가의 반열에 올린 대표작이 처음으로 국내 관객을 찾아온다. ‘한여름 밤의 꿈’은 스웨덴의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낮과, 본능과 환상이 깨어나는 밤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북유럽의 백야를 배경으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한여름 밤 축제를 현대 발레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기존 발레 문법을 깨는 파격적인 무대 구성과 연출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LG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서울 공연 직후 이어지는 지역 투어에서 ‘화성시’가 유일한 만큼 무용 애호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문굿과 사자춤 등 우리 전통의 역동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난장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은 신명나는 연희판의 매력을 한껏 담아낸 작품이다. 이야기, 음악, 노래, 춤,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악(樂)·가(歌)·무(舞)·희(戲)의 종합예술 ‘연희’가 다채로운 장면으로 펼쳐지며 시종일관 흥겨운 난장을 만들어낸다. ‘문굿’, ‘사자춤’, ‘북놀이’ 등 우리 전통의 멋과 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한국적 정서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무대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국립합창단 <Cinema Classics>

일시 2026. 5. 23.(토) 17: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행복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일시 2026. 6. 19.(금) 19:30

2026. 6. 20.(토) 15: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VIP석 17만 원, R석 14만 원, S석 10만 원,

A석 6만 원

대상 15세 이상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

일시 2026. 6. 26.(금) 19:3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A석 2만 5천 원, B석(행복석) 1만 원

대상 7세 이상

문화 공연을 당신의 일상 속으로

화성시 주요 공연장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통합 홈페이지에서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과
화성예술의전당의 다채로운 무대를 확인하고 예매까지 한 번에 즐겨보세요.



hac.hcf.or.kr

한눈에 보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5~6월
문화소식

문화소식



지구를 묻고 우리를 보다

2026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상반기 기획전시 <Earth? Us!>

기후 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 보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1부가 진행됐고, 5월과 6월에는 ‘우리(Us)’라는 키워드로 공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미디어아트 협력 기관 공모를 통해 유치한 5개의 완성도 높은 미디어 작품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1부에서는 이수진, 정혜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지구를 새롭게 감각하는 경험의 장이었다면, 2부에서는 AABB, 이조호, 장종완 작가의 작품과 함께 인간이 남긴 흔적과 살아가는 다른 존재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프로그램 또한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진행된다. 전시를 관람한 후 시를 활용해 자신만의 시선으

로 그림책을 생생해 보는 이번 프로그램은 작품 속에서 느낀 감각과 생각을 창작으로 확장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슨트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도슨트의 정규 해설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감상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도슨트는 별도의 예약 없이 정규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규 도슨트 운영 시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2026. 5. 6.(수)~2026. 6. 27.(토)

장소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1전시실

시간 화~토, 10:00~18:00

(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문의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031-378-5026

정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미술 소장자의 문턱을 허물다

2026 제로베이스X화성 상반기 프리뷰 & 온라인 경매

지역 시각예술인의 작품 유통을 지원하는 「2026 지역예술유통기반강화 <제로베이스X화성>」 상반기 프로젝트가 5월 13일 프리뷰 전시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프리뷰 전시는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운영되며, 화성시 기반 작가들의 작품을 사전에 감상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경매는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 오후 2시까지 응찰이 가능하다.

특히 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방식으로 미술 소장자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하는 ‘첫 컬렉팅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2026. 5. 13.(수)~5. 19.(화)

경매일 2026. 5. 20.(수) 14:00부터
온라인 경매 순차 마감

장소 서울옥션 강남센터, 서울옥션 홈페이지
문의 전시기획팀 031-290-4662

정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 동탄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

<FACE : 문인 - 시대를 담은 얼굴들>

기획전시<FACE : 문인 - 시대를 담은 얼굴들>은 한 시대를 살아낸 문인들의 얼굴을 통해 인간의 사유와 시대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얼굴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기록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조망하며 문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는 영인문학관이 소장한 김구림, 김기창, 김영태, 김용기, 변종하, 오수환, 윤명로, 송정연, 이종상, 장욱진, 천경자, 최영림 등 12명의 작가가 그린 문인 초상화 27점을 비롯해 『문학사상』 원본자료와 미디어 작품 등 약 50여 점이 함께 소개된다. 또한 문인들의 초상과 『문학사상』 원본자료를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슨트 프로그램과 작가의 서재 포토존, 필사체험 등 상시 프로그램

램을 운영하여 작품에 담긴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5월 중 ‘반짝반짝 자화상 프로젝트’ 연계 프로그램을 총 5회 운영하여, 화성특례시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인들의 얼굴을 따라 사유의 흔적을 더듬으며, ‘나는 어떤 얼굴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시 2026. 4. 7.(화)~5. 24.(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장소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가격 무료

문의 031-290-4603

문화 캘린더

Culture Calendar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전시부터 대형 콘서트 정보까지!

문화 캘린더가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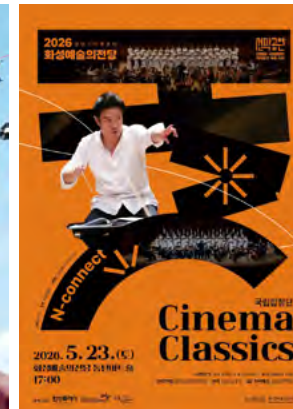
5 May

- 1
 - 2026 동탄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 <FACE:문인-시대를 담은 얼굴들>
~5. 24.(일) /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 및 동탄아트스퀘어
- 2
 - [키즈 시즌] 연극 <날말공장나라>
5. 2.(토) 11:00, 14:00 /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 6
 - 2026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상반기 기획전 <Earth? Us!>
2부, Us! - 복수의 존재
5. 6.(수)~6. 27.(토)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1전시실
- 9
 - 가족뮤지컬 <알파블록스>
5. 9.(토)~5. 10.(일) 11:00, 14:00, 16:3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10
 - 춤추는 서예 - 광장에 기록되는 몸
5. 10.(일) 17:30 / 동탄여울공원 음악분수 광장
※ 사전 체험(16:00~)
- 13
 -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 <백조의 호수>
5. 13.(수) 19:3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026 제로베이스X화성 상반기 프리뷰 전시
5. 13.(수)~5. 19.(화) / 서울옥션 강남센터 3층
- 20
 - 2026 제로베이스X화성 상반기 온라인 경매
5. 20.(수) 14:00 / 서울옥션 홈페이지
- 22
 -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5. 22.(금)~5. 25.(월) / 화성시 전곡항 일원
 - 금요일N <정기고>
5. 22.(금) 19:30 /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 23
 - 국립합창단 <Cinema Classics>
5. 23.(토) 17: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반석산 피크닉 <육상달빛X장들레>
5. 23.(토) 17:00 /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24
 - 화성시 예술단 기획공연 <콘서트 라운지 I - Festival & Classic>
5. 24.(일) 19:30 / 화성시 전곡항 메인무대
 - 화성시 예술단 기획공연 <콘서트 라운지 II - Cinema & Classic>
5. 24.(일) 19:30 / 화성시 전곡항 메인무대
- 30
 - [키즈 시즌] 뮤지컬 <폴리팝>
5. 30.(토) 11:00, 14:00 /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 찾아가는 공연장 거리공연
5. 30.(토) 19:00~20:00 / 진안동 병점광장

6 June

- 1
 - 2026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상반기 기획전 <Earth? Us!>
2부, Us! - 복수의 존재
5. 6.(수)~6. 27.(토)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1전시실
- 2
 - 화성 아트 WAVE 시리즈 I - <Lux Flux 렉스 플렉스>
6. 2.(화)~7. 12.(일) / 동탄아트스페이스
 - 화성 아트 WAVE 시리즈 II - <용녀의 시간 : Drawing the light>
6. 2.(화)~6. 30.(화) / 동탄아트스퀘어
- 6
 - 반석산 피크닉 <조지XSOLE>
6. 6.(토) 17:00 /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13
 - 연극 <행아>
6. 13.(토)~6. 14.(일) 14:00 /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 14
 - 찾아가는 공연장 거리공연
6. 14.(일) 19:00~20:00 / 효행구 삼봉근린공원(예정)
- 19
 -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6. 19.(금) 19:30, 6. 20.(토)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4
 - [렉서 콘서트] <공중무, 아름다운 태평성대의 꿈>
6. 24.(수) 19:30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아트홀
- 26
 - [트로트 스타즈] <김수찬 with 밴드 트로티카>
6. 26.(금) 19:30 /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 뮤지컬 <틸틸과 미틸>
6. 26.(금)~6. 27.(토) / 화성아트홀
- 29
 - 국립국악원 <연화-관 '홀'으로 잇는 세상>
6. 29.(금) 19:3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공연
- 전시
- 축제
- 행사
- 기타



《화분》에 도착한

응원 메시지



지난 호 독자 의견

화성시 구석구석을 의미 있게 조명하는 《화분》은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성장의 기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면을 따뜻하게 채워준 소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화성시 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합니다. 《화분》 또한 평소 자주 가던 송산도서관에서 접했구요. 제가 화성시 내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며 느낀 점은 공간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화성시 도서관들의 인상적인 전경과 분위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보승(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편으로 매거진 《화분》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화성시의 다양한 매력을 테마별 여행 코스로 풀어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소개된 코스를 따라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다뤄주신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매거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숙(화성시 병점구)

69호 중 가장 유익했던 콘텐츠는 시니어 동호회 소개와 따뜻한 정취가 느껴진 ‘<THE 가다> 울암온천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울암온천 기사처럼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나들이를 떠날 수 있는 화성시만의 숨은 명소들을 더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송남숙(화성시 효행구)

《화분》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 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6년 6월 15일까지
당첨발표 2026년 6월 18일(개별 연락)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은 분은 031-8015-8112로 문의 주세요.

배포처

동탄북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화성예술의전당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무작은도서관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봉담와우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작은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카페

다락
다원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들
카페오키아
카페 라온트리
디안
섹션
프라하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의료시설

서울건치과
관내 약국 40곳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갤러리문화아지트
달팽이 그림책방
모퉁이책방
바이올린하우스
신자연주의공방
공방 7보다
서해랑 제부도해상게이블카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체 배포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페이퍼 토퍼로 ‘화성 뱃놀이 축제’ 즐기자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곡항 일원에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직접 색칠하고, 오려 만든 특별한 페이퍼 토퍼로 나만의 축제를 완성해 보세요!



※ 완성된 페이퍼 토퍼를 들고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현장에서 멋진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6월 19일까지 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art@hcf.or.kr

만드는 방법은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 만들기 팁**
- STEP 1 검은선을 따라 페이퍼 토퍼를 오려주세요.
 - STEP 2 취향에 맞춰 글자를 색칠해 주세요.
 - STEP 3 뒷면에 나무젓가락을 붙여 토퍼를 완성하세요.
 - STEP 4 ‘화성 뱃놀이 축제’ 현장에서 토퍼를 들고 사진을 남겨보세요.

※ 주의! 가위를 사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화분》은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waboon.hcf.or.kr



화성시문화관광재단
SNS에서
재단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